

유치 전략과 전망

결선 대비 폴란드 지지표 확보 총력

(1차 투표 탈락 예상국)

모로코와 2차 투표... 운명 건 일전될 듯 8개 유치단중 5개팀 유럽에 집중 배치

지역의 숙원이자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11월 27일)가 8일로 50일 남았다.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현재 한국(여수),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3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박람회 개최권은 1차 투표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지지를 얻는 국가가 갖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개최국이 결정되지 않으면 상위 1, 2위 국가가 결선 투표를 벌여 승부를 가린다.

2012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3개국가가 뛰어 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1차에서 개최국이 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치희망국 가운데 가장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폴란드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할 것을 가정해 강력한 맞수인 모로코와 운명 건 일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최소한 과반수를 확보하고, 결선에서 승부를 가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1, 2차 투표별로 지지국 상황을 분석하며 치밀한 승부수를 마련해놓고 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5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수 유치를 위한 막판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여수 등지에서 열린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BIE(세계박람회기구) 대표단이 서울 경희궁에서 민찬을 갖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최권 확보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6일부터 이날 중 BIE회원국에 파견하는 8개 유치단 중 5개 팀을 유럽에 집중 배치한 것도 이같은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사실상 유럽표가 여수세계박람회로 가는 '보증수표'라는 판단 아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각 부처, 전남도, 여수시는 막바지 유치전이 전개되는 10월 유럽을 중심으로 바다표를 다진다.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핀란드·스위스 유치팀은 13일까지 현지에서 활동을 벌이며, 7~19일 모나코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주재하는 재외공관장회의가 열려 인접국 지지

표 확보에 나선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체코, 터키 등지에서 정몽구 유치위 명예위원장, 김재철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경제사절단이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제사절단에는 김준 경방 사장과 이태웅 대우인터내셔널 고문, 신상호 코오롱 부사장, 이재덕 태영건설 부사장, 이순조 명승건축 회장, 추진호 하나은행 부행장보, 김법준 한국투자증권 전무 등 20여명이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BIE 회원국 가운데 전통적인 우호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럽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시의 아프리카 의료봉사단이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에서 사랑의 인술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아프리카 봉사활동 성과 BIE 회원국 탄자니아·나이지리아 의료 봉사·문화 공연 등 큰 호평

여수시가 일선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프리카 사랑나눔' 봉사활동이 큰 성과를 거뒀다.

여수시와 순수 민간조직인 여수지구촌사랑나눔회는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여수의 사랑을 아프리카에'를 슬로건으로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탄자니아와 나이지리아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의사 6명을 비롯한 의료봉사단, 여수시립국악단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절단, 오현섭 여수시장을 단장으로 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교섭활동지원단 등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현지인 2천500여명을 진료했으며 문화사절단은 5차례의 공연을 통해 '사랑과 인간애'를 실천했다. 의료봉사단은 또 탄자니아 국립병원에

앰블런스 및 의약품,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에 소아마비 백신 등을 기증했다.

특히 방문국가 정부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적극 홍보해 탄자니아의 한 핵심관료로부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국력 조나단 부통령도 오현섭 여수시장과의 면담에서 여수박람회 유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인류에 실 천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토대 마련을 위한 이번 아프리카 봉사활동의 열기를 모아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여수를 반드시 확정짓자"고 강조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D-50 판세 여수, 조금 앞서지만 낙관 못한다

"아시아·미주 등 44개국 한국 지지"... 회원국 절반 달해

"한국이 가장 유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50일을 남겨 놓은 8일 현재의 판세에 대한 박람회 유치 관계자들의 일관된 대답이다.

한국은 경쟁국인 모로코나 폴란드에 비해 경제력, 국제대회 유치능력 면에서는 단연 앞서 있다는 게 객관적인 분석이다. 또 지구온난

화를 예견이라도 하듯 정해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을 받으며 유치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한국은 이처럼 우월한 여건을 바탕으로 지지 기반인 아시아와 미주 회원국을 바탕으로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현재 2012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가할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은 모두 104개국. 이 가운데 한국의 지지세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 아시아 18개국과 미주 26개국을 더하면 44개 국가에 이르러 거의 절반에 가까워진다.

모로코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아프리카 회원국은 24개국이며, 폴란드가 속해 있는 유럽은 36개국으로 단일 권역으로는 가장 많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특정국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게 관행이어서 쉽게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미주 회원국 지지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유럽 회원국에게 접근한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3분의 2 이상) 득표 때는 결선투표 없이 유치 결정을 득표할 수도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할 경우 3위 득표국가를 제외 한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에서 대세 물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모로코 왕실이 전면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가장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폴란드가 결선투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개연성이 높아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경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

여수시 BIE총회 참가단 모집

1인 체류비 40만원 지원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제 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총회 참가단 모집이 시작됐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26·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총회에 참가할 대상자 모집에 착수했다. BIE참가단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1인당 40만원의 체류비가 지원된다.

이번 'BIE총회 참가단' 여행프로그램은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인근 유럽국가를 여행하는 3가지 패키지 상품으로 짜여졌다.

각 상품별 여행국가와 기간, 비용은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11월 22일~28일)=259만원 ▲영국, 프랑스, 독일(11월 24일~30일)=259만원 ▲독일, 스위스, 프랑스(11월 23일~29일)=249만원이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지원 금액 40만원은 귀국 후 개별적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문의는 여수시 세계박람회 지원단, 061-690-7188.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회

2007. 10. 8(월)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공기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시민속세

공공기관협의회

꿈이 씨가 될 꽃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문화관광부